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이선영*, 이정숙**, 김윤영***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상명대학교 간호학과**, 안동대학교 간호학과***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Efficacy on Ego-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Sun Young Lee*, Jung Suk Lee**, Yunyoung Kim***

Department of Nursing Gongju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Nursing Sangmyung University**

Department of Nursing Andong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의 관계를 확인하고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016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G시에 위치한 4년제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서면동의를 받아 247건의 자료를 수집하여 SPSS 22.0 Statistics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 자아존중감은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과 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기효능감은 자아탄력성과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이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59.2%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이 앞으로 임상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을 적절한 대처하고 적응하면서 전문직 간호역량을 높이기 위해 대학교육에서부터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겨지며,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활용한 자아탄력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요구된다.

주제어 :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간호대학생, 융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of self-esteem, self-efficacy and ego-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and to evaluate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self-efficacy to ego-resilience. In this study, 247 data was collected from nursing students of G-city in South Korea from Sep. 2016 to Nov. 2016, and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with SPSS 22.0 Statistics Program. The result showed that self-esteem had positive correlation with both of self-efficacy and ego-resilience, and self-efficacy had positive correlation with self-efficacy. Both of self-esteem and self-efficacy were significant to ego-resilience with the explanation power of 59.2%. It is necessary for nursing students to improve their self-esteem and self-efficacy from college education to cope and adapt to various stress situations experienced in the clinical field, and it is required to develop the ego-resilience improvement program using self-esteem and self-efficacy.

Key Words : Self-Esteem, Self-Efficacy, Ego-Resilience, Nursing Students, Convergence

* 이 논문은 2016학년도 안동대학교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Received 9 February 2017, Revised 5 April 2017

Accepted 20 May 2017, Published 28 May 2017

Corresponding Author: Yunyoung Kim

(Andong National University)

Email: yykim@anu.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급격한 의료기술의 발전과 의료 환경의 변화로 보건 의료의 질 향상에 대한 대상자들의 요구가 증가하면서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역량 있는 전문직 간호사를 필요로 하고 있다. 간호학과에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대학에 진학하면서 간호사라는 직업이 결정되기 때문에 핵심 역량을 갖춘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에서의 간호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1]. 또한 간호대학생의 역량강화를 위해 한국간호교육평가원(KABON,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에서는 간호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적절성은 물론 인문사회과학 관련 교과목 비율 유지, 임상실습시간 충족, 임상실습지도 인원 제한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간호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 자체적으로도 시뮬레이션 교육을 기반으로 한 간호 실무능력 향상, 비교과 활동 프로그램을 활용한 다양한 경험 제공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간호대학생은 전공이론 교과목 학습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2], 학기 중 전공이론 교과목 학습과 더불어 임상실습을 병행해야 하는 부담감과 국가고시 준비로 인해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3, 4]. 게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가 된 이후에도 급격하게 변화하는 임상 상황과 3교대 업무, 다른 전문 의료 직종들 간의 대인관계 문제에 대한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직을 고려하게 된다.

우리나라 간호사들의 평균 이직률은 16.9%로 알려져 있으며, 이중 신규간호사 이직률은 33.6%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정규발령 직후 이직이 11.9%, 발령 부서에서의 현장 교육이 진행되기 전 이직이 13.1%, 부서현장 교육 중 이직하는 비율이 3.4%로 실질적인 간호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직하는 비율이 28%를 넘어서고 있다[5, 6]. 이렇게 신규간호사가 전문직 간호사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기 이전에 이직하게 되면서 질 높은 간호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병원 내 간호인력 부족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게 되었다.

자아탄력성이란 변화하는 상황이나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 속에서 적절한 자아통제를 통해 융통성 있게 반응하여 성공적인 적응을 이루는 능력을 의미한다[7]. 일반적으로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긴장, 인내의 수준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 낮은 상황에서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들에 유연하게 반응하여 성공적인 적응이 가능해 진다[8]. 이러한 이유로 자아탄력성은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에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9],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과정과 임상수행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변인으로 제기되고 있으며[10], 예기치 않은 임상상황 속에서 뛰어난 문제해결능력을 발휘하게 한다고 하였다[11].

자아탄력성은 대학생활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임상 상황 속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역량 있는 전문직 간호사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일 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이직이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12] 대학교육 내에 학생의 자아탄력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겨진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을 중중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있는 사람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며[13],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바람직한 기대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을 의미한다[14].

그동안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은 원만한 대학생활과 전문직 간호사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로 거론되면서 관련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선행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 직업자기효능감이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 이를 바탕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성공적 적응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인 자아탄력성에[8]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더욱이 자아탄력성의 경우 자아탄력성이 대학생활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나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 되었을 뿐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9, 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역량 있는 전문직 간호사가 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정도를 파악하고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융통성 있게 적응하도록 돕는[17] 자아탄력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

그럼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을 파악하고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정도를 확인한다.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정도의 관계를 분석한다.
- 4)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2016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G시에 위치한 4년제 간호학과 학생을 임의 표집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자료 수집 시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은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작성은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연구대상자가 설문작성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라도 철회가 가능하다는 내용과 연구 자료의 익명성과 비밀보장에 대해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로부터 총 291부의 설문지가 수거되었으며, 이 중 일부 문항의 응답이 누락되어 있는 설문지 44부를 제외한 247부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2.4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학년,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학업성적, 간

호학과 선택 동기, 교우관계로 구성된 8개 문항을 조사하였으며,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구체적인 연구도구는 다음과 같다.

2.4.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3]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Kim[18]이 한국어로 번안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존중감 도구는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대한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대한 5문항으로 구성된 총 10문항의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 도구의 신뢰도는 Kim[1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8$ 이었다.

2.4.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근거로 [14] Sherer와 Maddux[19]가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Self Efficacy Scale, SES)를 Hong[20]이 번안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효능감 척도는 일반적 효능감 17문항과 사회적 효능감 6문항으로 구성된 총 23문항의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일반적 효능감 Cronbach's $\alpha=.86$, 사회적 효능감 Cronbach's $\alpha=.70$ 이었고 Hong[20]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77$ 이었다.

2.4.3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Klohnen[7]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Ego Resiliency Scale, ERS)를 Park[21]이 번안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탄력성 도구는 자신감, 대인관계 효율, 낙관적 태도, 감정통제의 하위항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자신감 9문항, 대인관계 효율 8문항, 낙관적 태도 10문항, 감정통제 2문항의 총 29문항 5점 Likert 척도이다. Park[21]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1$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1$ 이었다.

2.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Statistics Program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음 t-test 및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Multiple Regression)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여자가 221명(89.5)으로 남자 26명(10.5%)보다 많았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53명(21.5%), 2학년이 60명(24.3%), 3학년과 4학년이 각각 67명(27.1%)으로 조사되었다. 대상자들이 느끼는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건강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152명(61.5%)로 가장 많았고 건강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9명(3.6%)이었다. 또한 대상자가 느끼는 주관적 학업성적 정도는 보통이라 응답한 경우가 163명(66.0%)으로 가장 많았으며, 높다고 응답한 경우가 27명(10.9%), 낮다고 응답한 경우는 57명(23.1%)이었다. 간호학과 선택 동기에 대한 문항에서는 높은 취업률 때문이라 응답한 경우가 96명(38.9%)로 가장 많았으며, 적성에 따라 선택한 경우가 84명(34.0%), 부모님의 권유가 35명(14.2%), 성적이 맞추어 선택했거나 기타 이유가 각각 16명(6.5%)으로 나타났다. 간호학과 만족에 대한 문항에서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29명(52.2%)로 가장 많았으며, 만족 90명(36.4%), 매우만족 11명(4.5%), 불만족 17명(6.9%)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우관계에 대한 문항에서는 매우 좋다 59명(23.9%), 좋다 114명(49.2%), 보통 69명(27.9%), 나쁘다 5명(2.0%)으로 조사되었다 <Table 1>.

3.2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정도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정도를 살펴본 결과 자아존중감은 평균 3.72±.598점이었으며, 자기효능감은 평균 3.21±.371점으로 하위 항목에서는 사회

적 효능감(3.06±.494점)보다 일반적 효능감(3.26±.421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은 평균 3.38±.518점으로 자신감, 대인관계 효율, 낙관적 태도, 감정통제로 구성된 하위항목에서는 감정통제가 3.27±.870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낙관적 태도가 3.48±.558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4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ale	26 (10.5)
	Female	221 (89.5)
Grade	Freshman	53 (21.5)
	Sophomore	60 (24.3)
	Junior	67 (27.1)
	Senior	67 (27.1)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y	152 (61.5)
	Moderate	86 (34.8)
	Unhealthy	9 (3.6)
Academic Record	Good	27 (10.9)
	Fair	163 (66.0)
Select Motive of Nursing	Poor	57 (23.1)
	Test Scores	16 (6.5)
	Aptitude	84 (34.0)
	Employment	96 (38.9)
	Parents	35 (14.2)
Peer Relation	Other	16 (6.5)
	Very Good	59 (23.9)
	Good	114 (46.2)
	Fair	69 (27.9)
	Poor	5 (2.0)

<Table 2> Degree of Self-Esteem,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Ego-Resilience (N=247)

Variables	M±SD	Min	Max
Self-Esteem	3.72±.598	1.60	5.00
Self-Efficacy	3.21±.371	2.17	4.09
General Efficacy	3.26±.421	2.00	4.29
Social Efficacy	3.06±.494	1.50	4.00
Ego-Resilience	3.38±.518	2.14	4.83
Confidence	3.37±.594	2.00	4.89
Efficacy of Interrelationship	3.30±.668	1.63	5.00
Optimistic Attitude	3.48±.558	2.30	4.80
Emotional Control	3.27±.870	1.50	5.00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정도를 살펴본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하다고 느끼는 경우에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보다 자아존중감($F=8.305, p<.001$) 및 자아탄력성($F=15.057, p<.001$)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의 경우 스스로 성적이 높다고 응답한 경우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자아존중감($F=3.435, p=.034$), 자기효능감($F=4.181, p=.016$), 자아탄력성($F=10.756, p<.001$)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분석 결과에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간호학과 선택 동기에 따라 자기효능감($F=3.036, p=.018$)과 자아탄력성($F=5.242, p<.001$)에 차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우관계가 매우 좋다고 응답한 경우 좋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자아존중감($F=8.509, p<.001$)이 높았고, 교우관계가 보통 혹은 좋지 않은 경우보다 자아탄력성($F=15.660, p<.001$)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에서도 차이를 보였다($F=2.733, p=.044$)<Table 3>.

<Table 3> Degree of Self-Esteem,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Ego-Resili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47)

Variables	Self-Esteem		Self-Efficacy		Ego-Resilience	
	Mean±SD	t/F(p) Scheffe	Mean±SD	t/F(p) Scheffe	Mean± SD	t/F(p) Scheffe
Gender						
Male	3.71±.68	-0.162 (.872)	3.34±.34	1.914 (.057)	3.46±.42	0.842 (.400)
Female	3.73±.59		3.19±.37		3.37±.52	
Grade						
Freshman	3.73±.56	0.519 (.670)	3.24±.36	0.274 (.844)	3.47±.56	1.920 (.127)
Sophomore	3.77±.54		3.22±.34		3.41±.50	
Junior	3.65±.61		3.20±.38		3.26±.49	
Senior	3.76±.65		3.18±.39		3.41±.49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y ^a	3.84±.62	8.305 (<.001)	3.24±.37	1.148 (.319)	3.52±.51	15.057 (<.001)
Moderate ^b	3.55±.51		3.16±.37		3.19±.46	
Unhealthy ^c	3.40±.42		a>c		3.15±.24	
Academic Record						
Good ^a	3.95±.63	3.435 (.034)	3.35±.32	4.181 (.016)	3.69±.44	10.756 (<.001)
Fair ^b	3.74±.58		3.22±.37		3.41±.51	
Poor ^c	3.59±.59		a>c		3.11±.34	
Select Motive of Nursing						
Test Scores ^a	3.69±.44	2.021 (.092)	3.17±.23	3.036 (.018)	3.36±.33	5.242 (<.001)
Aptitude ^b	3.87±.56		3.29±.37		3.58±.52	
Employment ^c	3.63±.65		3.17±.38		3.29±.51	
Parents ^d	3.68±.58		3.07±.34		3.19±.52	
Other ^e	3.66±.51		3.33±.34		3.37±.36	

3.4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아존중감은 자기효능감($r=.478, p<.001$), 자아탄력성($r=.689, p<.001$)과 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기효능감은 자아탄력성($r=.622, p<.001$)과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among Self-Esteem, Self-Efficacy and Ego-Resilience

(N=247)

Variables	Self Esteem	Self Efficacy	Ego Resilience
	r(p)	r(p)	r(p)
Self Esteem	1		
Self Efficacy	.478(<.001)	1	
Ego Resilience	.698(<.001)	.622(<.001)	1

3.5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산출한 결과 공차한계 .772, VIF 1.296으로 나타나 공차한계 0.1 이상, VIF 10 이하 기준을 충족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증인 Durbin-Watson Test를 실시한 결과 d=1.921로 2에 가까운 수용기준에 부합하여 잔차의 자기상관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산출된 회귀모형의 모형 적합도가 적절하였으며(F=179.333, $p<.001$),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beta=.520$, $p<.001$), 자기효능감($\beta=.373$, $p<.001$)이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R2은 .592로 확인되어 이들 변인들은 자아탄력성에 대해 59.2%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5> The Effects of Self-Esteem,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on Ego-Resilience of Subjects

(N=247)

Variables	B	SE	β	t	p
Self Esteem	.450	.040	.520	11.210	<.001
Self Efficacy	.520	.065	.373	8.054	<.001

R2=.595, Adj. R2=.592, F=179.333, $p<.001$

4. 논의

의료과학기술의 발달과 의료기관의 첨단화 및 경쟁관계 속에서 환자중심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역량 있는 간호인력 양성을 위한 간호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역량 있는 전문직 간호사에게 필요한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정도를 파악하고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은 3.38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활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을 조사

한 Kim과 Lee[16]의 연구 3.38점과 유사하였다. 그러나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Lee와 Park[22]의 연구 3.44점 보다는 약간 낮았으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을 조사한 Jo와 Lee[23]의 연구 2.91점보다는 높았다. 자아탄력성은 일반적, 보편적인 적응기전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발달과정이라는 점과[24] 연령에 따라 자아탄력성의 차이가 있다고 밝힌[16]의 연구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고등학생 보다 연령이 높은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점수가 높게 조사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경우 임상실습 경험이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나 본 연구 결과 학년별 자아탄력성에 차이가 없었으며, 임상실습 경험을 기준으로 간호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을 비교한 연구가 없어 추후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여겨진다.

자아탄력성 하부항목의 경우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연구 결과들과 동일하게 낙관적 태도 항목이 가장 높았으며, 감정통제 항목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2].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뿐만 아니라 향후 임상현장속에서 다양한 대상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느끼게 되는 감정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하부항목 중 감정통제 항목이 여러 연구에서 낮게 나타는 결과를 미루어 볼 때 간호대학생의 감정통제가 많이 부족하다 보여지며, 임상에서 간호사로서 역할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간호대학생의 감정통제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하다 여겨진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자아존중감 및 자아탄력성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느끼는 경우 건강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보다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 점수가 높았는데 이는 Lee와 Kim[25]의 연구에서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결과와 Jeong과 Kwon[26]의 연구에서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에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스스로 성적이 높다고 응답한 경우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

신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지각하는 자아존중감이나 목표 성취에 대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라 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의 특성으로 인한 결과라 여겨진다.

비록 사후분석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간호학과를 선택한 동기에 따라 자아탄력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적성에 맞추어 학과를 선택한 경우가 부모님의 권유나 취업률을 고려하여 학과를 선택한 경우보다 자아탄력성 점수가 높았다. 이는 간호학과 입학 동기가 높은 취업률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자아탄력성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 Chae[27]의 연구와 적성에 맞추어 간호학과에 지원한 경우 자아탄력성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와 비슷한 결과로 [9, 27, 28] 자아탄력성이 낮은 학생의 경우 자신의 적성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고 미래를 건설적으로 설계하지 못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보여진다. 최근 대학졸업 후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높은 간호학과를 선택하여 입학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나 학생들의 진로 결정 시 적성을 고려하지 않게 되면 낮은 자아탄력성으로 인해 대학생활 적응은 물론 향후 임상에서의 성공적인 적응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이러한 부적응은 다시 이직과 사직으로 이어져 간호사 부족이라는 사회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자신의 적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진로에 대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 여겨진다.

교우관계에서는 교우관계가 매우 좋다고 응답한 경우 나쁘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인관계가 좋고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경우 자아탄력성 점수가 높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이 유사한 것으로 [9, 28]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와 갈등상황에서 긍정적 의미를 찾으려 노력하며,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나 [29]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잘 해결하고 원만한 교우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변수 간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자아탄력성이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간호대학생의 자기효

능감과 자아탄력성이 매우 강한 양의 상관관계($r=.757$, $p<.001$)를 나타낸 Kim과 Lee[16]의 결과로 설명이 가능하다. 자아가 탄력적인 사람들은 높은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을 지니고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잘 적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30]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향상을 위해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아가 탄력적이면 자신의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인지적 능력 또한 우수해 직면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있어 [17] 향후 핵심 역량을 갖춘 간호사로 성장하는데 자아탄력성은 반드시 필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뿐만 아니라 이를 교육과정에 연계하여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때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과 같이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자아탄력성으로 인해 영향 받는 요인들에 대한 진행되어온 선행연구와는 달리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일개 지역에 거주하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점이 있으므로 특정지역 간호대학생에 편중되지 않도록 표집범위를 확대한 연구와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을 고려한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규명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정도를 파악하고 변수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자아탄력성은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학업성적 정도, 간호학과 선택 동기, 교우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은 서로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자아탄력성의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이 앞으로 임상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을 적절한 대처하고 적응하면서 전문직 간호역량을 높

이기 위해 대학교육에서부터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겨지며,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활용한 자아탄력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요구된다.

ACKNOWLEDGMENTS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grant form 2016 Research funds of Andong National University.

REFERENCES

- [1] S. K. Lee, S. N. Park, S. H. Jeong, "Nursing care competencies needed in the fields of nursing practice for graduates in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Vol. 18, No. 4, pp. 460-473, 2012.
- [2] Y. J. Kim, "Type of Coping with Str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5, No. 3, pp. 29-39, 2014.
- [3] H. J. Lee, "Convergence Study on Nursing Students' Stress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4, pp. 75-83, 2016.
- [4] H. J. Park, I. S. Jang,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6, No. 1, pp. 14-23, 2010.
- [5] B. H. Kim, B. Y. Chung, J. K. Kim, A. Y. Lee, S. Y. Hwang, J. A. Cho, J. A. Kim, "Current situation and the forecast of the supply and demand of the nursing workforce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Vol. 25, No. 6, pp. 701-711, 2013.
- [6] E. J. Jung, G. S. Chae, W. J. Noh, M. M. Park, U. Y. Cho, H. J. Kim. "Korean hospital nurses association", *Hospital Nurses Association*, pp. 77-86, 2013.
- [7] E. C. Klohn,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 resili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0, pp. 1067-1079, 1996.
- [8] H. J. Park, "Perceived stress, coping and depression of ego-resili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n University of Korea, Seoul. pp. 1-70, 1996.
- [9] J. A. Park, E. K. Lee,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tress coping styles on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7, No. 3, pp. 267-276, 2011.
- [10] Y. S. Park, Y. H. Kwon, "Ego resilience, problem solving process and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 3, pp. 341-350, 2013.
- [11] M. O. Chae, "Ego resilience, empathic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Vol. 17, No. 5, pp. 95-103, 2016.
- [12] M. G. Choi, H. K. Kim, "The effect of workplace bullying and ego-resilience on turnover intention of nurses in the public hospital",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5, pp. 3257-3267, 2015.
- [13] B. Gray-Little, V. S. L. Williams, T. D. Hancock,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the rosenberg self esteem scal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23, pp. 443-451, 1997.
- [14] A. Bandur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 84, pp. 119-215, 1977.
- [15] Y. R. Kweon, "Relationships of self-esteem, resilience, and occupational self efficacy among nursing students", *Women Health*, Vol. 17, No. 1, pp. 1-18, 2015.
- [16] D. J. Kim, J. S. Lee,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elf-efficacy on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2, pp. 244-254, 2014.
- [17] J. Block, J. H. Block,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 13, pp. 19-101, 1980.

[18] C. H. Kim, "A study on the problem of returnees's adaptation and self-esteem", Unpublished Mas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pp. 1-79, 1995.

[19] M. Sherer, J. Maddux, "The self 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Vol. 51, pp. 663-671, 1982.

[20] H. Y. Hong, "The relationship of perfectionism, self-efficacy and depression", Master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pp. 1-90, 1995.

[21] H. J. Park, "Perceived stress, coping, depression and ego resilience", Unpublished Maser's Thesis, Korea University, pp. 1-80, 1997.

[22] E. K. Lee, J. A. Park, "Ego resilience and the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 27, No. 2, pp. 293-303, 2013.

[23] H. I. Jo, N. Y. Lee,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and ego resiliency: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self determination motivation", Youth Research, Vol. 17, No. 6, pp. 1-20, 2010.

[24] N. Garnezy, M. Rutter,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in children", McGraw-Hill, New York, 1983.

[25] Y. K. Lee, H. L. Kim, "The relationship of ego resilience and involvement with the experience of anxiety and perceived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Vol. 15, No. 4, pp. 1953-1962, 2014.

[26] H. Y. Jung, J. O. Kwon, "A study on the stress, self esteem, and mental health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 7, No. 4, pp. 191-204, 2013.

[27] M. O. Chae, "Ego resilience, empathic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Vol. 17, No. 5, pp. 99-103, 2016.

[28] K. H. Kim, E. H. Hwang, "Influence of ego resili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

leadership on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 Industrial, Vol. 17, No. 2, pp. 436-445, 2016.

[29] M. M. Tugade, B. L. Fredrickson, "Resilience individuals use positive emotions to bounce back form negative emotional experi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86, No. 2, pp. 320-333, 2014.

[30] H. S. Jang, "Resilience as a factor interrupting psychological disorder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Development, Vol. 14, No. 1, pp. 105-119, 2001.

이 선 영(Lee, Sun Young)



- 1984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 석사)
- 2004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 박사)
- 1976년 4월 ~ 현재 :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노인, 정신
- E-Mail : sylee@kongju.ac.kr

이 정 숙(Lee, Jung Suk)



- 2010년 2월 : 공주대학교 (간호학 석사)
- 2013년 8월 : 공주대학교 (간호학 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상명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정신건강, 중독
- E-Mail : luckyjs34@hanmail.net

김 윤 영(Kim, Yun Young)



- 2008년 2월 : 공주대학교 (간호학 석사)
- 2011년 2월 : 공주대학교 (간호학 박사)
- 2016년 9월 ~ 현재 : 안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정신, 대체의학
- E-Mail : yykim@anu.ac.kr